

군산시,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진행

군산시가 폭염경보에 대응해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에 나섰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폭염특보가 발령 확대됨에 따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폭염피해 집중대응 기간'을 지난 7월 29일부터 2주간 운영중에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 역시 단독 농작업 자제와 수분 섭취 등 폭염 시 농작업 요령을 안내하면서 농업인 온열질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온열질환 예방 및 농작업 안전을 위해서는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나홀로 작업은 최대한 피하고 2인 1조로 작업하기 △모자나 자외선차단제로 피부 보호하기 △그늘진 장소

를 마련하여 규칙적인 휴식과 물마시기 △무더운시간(12~17시) 피해서 작업 최소화 등이 있다.

농촌진흥청 온열질환 발생 현황에 따르면 8월 3일자 기준, 온열질환자 1,546명 중 농업 분야는 320명(전북 23명)으로 전체 20.7%에 해당하여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폭염 사망자의 40%가 65에 이상의 고령 농업인임을 감안해 군산시는 야외 논·밭, 비닐하우스 농작업을 하는 농업인들을 수시 점검하고 온열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강조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만전

군산시, 안전수칙 안내

군산시가 폭염경보에 대응해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에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폭염특보가 발령 확대됨에 따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폭염피해 집중대응 기간'을 지난 7월 29일부터 2주간 운영중이다.

이에 시는 단독 농작업 자제와 수분 섭취 등 폭염 시 농작업 요령을 안내하면서 농업인 온열질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온열질환 예방 및 농작업 안전 수칙은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나홀로 작업은 최대한 피하고 2인 1조로 작업

하기 △모자나 자외선차단제로 피부 보호하기 △그늘진 장소를 마련해 규칙적인 휴식과 물마시기 △무더운시간(12~17시) 피해서 작업 최소화 등이다.

농촌진흥청 온열질환 발생 현황에 따르면 8월 3일자 기준 온열질환자 1,546명 중 농업 분야는 320명(전북 23명)으로 전체 20.7%에 해당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폭염 사망자의 40%가 65에 이상의 고령 농업인임을 감안해 시는 야외 논·밭, 비닐하우스 농작업을 하는 농업인들을 수시 점검하고 온열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강조할 계획이다.

/군산=이찬우 기자